

사시사철 문화꽃 피우는 강변 문화아지트



영산강문화관에서는 작가들을 초청, 다양한 기획전을 열고 있다.

자연과 문화 어우러진 '위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

남도 역사·문화·삶 조망 주말엔 3000여명 찾아

매주 문화장터 공연 만개 지역 미술인 기획전시도

10월 4~8일 한가위 민속한마당 행사

10월 27~28일 '문화제' 사진·영상전, 국악 공연

'남도의 젓줄' 영산강을 따라 이어지는 승촌보 인근은 나들이 하기 좋은 곳이다. 계절따라 다양한 나무와 꽃이 피는 푸른 녹지의 승촌 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윽한 캠핑장에서는 함께 밤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이들도 많다. 또 자전거 레이서들에게도 인기 코스다.

이곳에 자리한 3층 규모의 위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이 문화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산강 문화관은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더불어 강변, 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까지 즐길 수 있는 1석 2조의 공간이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특히 3층 전망대에서 바라다 보는 탁 트인 풍경은 인상적이다. 영산강문화관과 승촌공원은 평일 200~300명, 주말에는 2000~3000명이 다녀간다.

영산강문화관은 영산강의 물길을 따라 형성된 남도의 역사와 문화, 생태,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실내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장터, 미술 전시, 문화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복합 커뮤니티 문화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1층 전시실은 영산강을 비롯한 강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물결꿈존, 물길여행존, 희망나눔존 등으로 꾸며져 있다.

올해부터는 2층 공간을 본격적인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을 대여해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촉망받는 작가들을 초청해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박오순·황근정의 '전통민화전'을 시작으로 이영실 작가를 초청한 '엄치와 체면'전, 송영학·하루·최미연·문형선·김주연 등 12명의 작가가 함께 한 '해석의 차이'전, 김기현 작가의 '달항아리'전, 김동아·윤준영의 '랜드스케이프'전 등을 열었고 현재는 이선희 작가의 '지나도 좋으리'전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영산강 문화장터'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행사다. 가을 시즌 행사는 지난 2일 시작돼 오는 11월 12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오전 11시~오후 6시) 열린다.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장터와 지역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문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진 즐거운 축제다.

설맞이 복잔치, 어린이날 행사 등을 열었던 영산강문화관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 4~8일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한가위 민속한마당' 행사도 연다.

제기차기 대회와 율놀이 등이 펼쳐지는 민속놀이 경연대회(4~5일)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며 전통음악과 재즈가 만난 퓨전재즈 공연(7~8일)은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또 지역 공예체험과 다양한 먹을거리를 만나는 영산강 문화장터가 함께 열리며 '영산강의 신목(神木) 그리고 민속'을 주제로 사진전도 개최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제1회 영산강문화제'를 개최한다. 다양한 시각으로 영산강의 고유 문화를 발굴해 나가는 작업으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자원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볼 계획이다. 올해 주제는 '민속'으로 정했으며 앞으로 문화,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오는 10월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는 영산강 민속사진전과 전남민속의 현장(영상)전, 한국영상진흥원과 함께하는 영화상영, 다양한 국악공연 등이 열리며 새끼 꼬기, 줄다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서해속 남도학연구소장이 들려주는 '영산강 옛 이야기',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이 들려주는 '영산강 길 따라' 등 강연도 마련했다.

전남 강사의 지도로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문화관의 강점이다. 승촌공원의 농경·선사 문화와 청자를 활용한 '영산강 문화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또 부채·풍경 만들기 등 유아대상 미술 감상 및 만들기 체험과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인 장희정 관장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영산강 문화관은 물과 강을 소재로 한 것들을 담은 지역 문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라며 "공원과 강변 등 자연과 문화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곳으로 1년 내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cafe.naver.com/yeongsangan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1-335-08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각가 박형오 고향 광주서 개인전



'세상을 보다'

28일~10월11일 무등갤러리

조각가 박형오의 작품들은 지극히 사실적이다. 한을 한을 빚어올린 여인의 머리카락,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의 반쯤 벌어진 입과 슬픈 눈동자,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아기의 새초롱한 표정, 그리고 당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한 남자의 얼굴...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바로 내 곁의 누군가처럼 현실감이 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형오 작가가 무등갤러리 초청으로 고향 광주에서 첫 개인전(28일~10월 11일)을 열고 그동안 작업했던 20여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 특징은 얼굴, 손, 발 등 신체 일부분을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지점도, 일투미늘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형상을 만들고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해 마치 실제처럼 보인다. 강렬한 작품은 조선시대 화가 윤두서

'의 자화상'을 모티브로 한 '세상을 보다'. 원작이 갖고 있는 형형한 눈빛의 자화상을 맑은 눈빛으로 순화시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을 담은 작품으로 꿈틀거리는 진한 눈썹과 수염이 인상적이다. 그밖에 사실적으로 조각된 앙상한 손과 발이 초록 줄기로 이어진 '나로 비롯되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나를 맡게 하다',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날개를 짊어준 소녀의 모습을 형상화한 '위로받다'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박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성신여대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성신여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오지호 미술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전남조각회, 조각그룹 '푸른흙', '흙과 사람들' 회원이며 전남대·성신여대에 출강 중이다. 문의 062-230-2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히르챔버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히르챔버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2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바히르챔버오케스트라(Bachir Chamber Orchestra)는 찬양 선교를 목적으로 2014년 창단됐다. 바히르는 히브리어로 '구별된 자' '선택된 자'를 의미한다.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지금까지 팔라우, 상하이, 마닐라, 카두만두 등에서 찬양 선교를 진행했으며,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오 거룩한 밤', '오 보에 협주곡 C장조', '가브리엘 오보에', '한국 민요 뱃노래', '리베르 텅고', '고난의 길', '주 날 구원 했으니' 등의 무대가 준비되었다. 지휘자 박문경(사진)은 전남대학교 사

범대학 음악교육과, 경희대 대학원 음악학과, 독일 국립켈른음악대학원에서 첼로를 전공했으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음대에서 관현악 지휘를 전공했다. 현재, 바히르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전북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오보이스트 김영주가 협연자로 나선다. 김영주는 독일 Duiburg 음대에서 수학했다. 전석 2만원 (학생할인50%). 문의 010-4301-1929. /전은재기자 e16621@



광주시 남구 승촌보 인근에 자리한 영산강문화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